

龍膽瀉肝湯을 이용한 帶狀疱疹의 急性期 痛症에 대한 治驗 1例

구창모, 박영준*, 박주한, 허금정*, 남창규*, 선중기
광동한방병원 내과,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교실*

A Case Report of Herpes zoster with acute pain by Yongdamsagan-tang(longdanxiegan-tang)

Chang-Mo Koo, Young-Jun Park, Joo-Han Park, Geum-Jeong Heo*, Chang-Gyu Nam*, Jung-Ki Su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wang-Do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Department of Circulatory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Herpes zoster is a viral disease characterized by unilateral radicular pain and vesicular eruptions that are generally limited to the dermatome innervated by single spinal or cranial sensory ganglion.

The disease causes severe pain and in particular, put elderly patients in great risks and further it develops postherpetic neuralgia.

Nowadays western medicine use antiviral drug(ex: acyclovir), analgesics, nerve block and etc for treatment of herpes zoster and pain control, but the effect is not much satisfactory.

A 73- year-old patient, admitted to our hospital because of severe migraine.

Two days later, her illness was diagnosed as herpes zoster so we administrated Yongdamsagan-tang.

After the six-day of treatment, all symptoms improved, especially headache was cleared since the four day long administration of Yongdamsagan-tang.

Key Words: Herpes zoster, Yongdamsagan-tang(longdanxiegan-tang), pain

1. 緒 論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varicella-zoster-virus(이하 vzv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 수포성 피부질환으로 단일 뇌척수 신경의 감각신경절을 따라 편측성으로 수포성 발진과 함께 방사성 신경통과 지각이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

로, 주로 흉부 피부절 및 요추, 특히 3번 흉추골에서 3번 요추골 사이의 신경절을 많이 침범하며 삼차신경, 경부, 천골의 피부절에서도 발생한다.

韓醫學에서는 국부의 피부에 灼熱感과 刺痛이 생기고, 곧 發赤하여 미립대에서 완두대가 되고 대상으로 배열하는 수포를 형성하며, 수포는 투명에서 혼탁으로 전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纏腰火丹, 蛇串瘡, 蜘蛛瘡 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증상이 대상포진의 증상과 유사하며 1 대상포진을 이러한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龍膽瀉肝湯은 金元代 李의 東垣十書 蘭室秘藏에

· 접수 : 2002년 9월 28일 · 채택 : 2002년 12월 20일
· 교신저자 : 구창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광동한방병원 외과
(Tel: 02-2222-4869 E-mail: koochm@hanmail.net)

“治陰部時復熱痒及臊臭”라하여 처음 수록되었고, 淸肝瀉火 淸利濕熱을 위한 처방으로*, 吳⁷는 肝心 二經의 火에 의한 대상포진의 경우 涼心瀉肝하는 龍膽瀉肝湯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최근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상포진 발병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포진후 신경통의 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포진후 신경통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⁸.

그러나 이 질환은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병변부위에 통증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오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⁹.

대상포진에 동반하는 동통은 개인차가 심하고 변화양상도 다양하며 특히 노인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포진후 신경통은 60세 이상의 환자의 50%에서 발생한다. 또한 대상포진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예방책은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權 등⁸에 의하면 초기동통이 mild한 경우에는 14.3%에서, moderate한 경우에는 3.1%에서, severe한 경우에는 33.3%에서 포진후 신경통이 발생한다고 하여 대상포진의 치료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이행하는것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통증의 양상도 심하고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이행하는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의 급성기 통증을 줄이고 포진후 신경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acyclovir와 steroid, 인터페론의 근육주사요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등의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¹⁰.

이에 본 저자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삼차신경 안분지에 발병한 대상포진 급성기 환자 1례에 대해 龍膽瀉肝湯 투여로 포진에 동반하는 통증에 대한 유효한 효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患者症例

1. 성명 : 최 XX Female 72
2. 주소증 : (1) 우측 편두통 (2) 우측 안구 동통
(3) 불면 (4) 우측 견비통
(5) 좌반신 소력
3. 발병일 : 2002년 7월 15일
4. 과거력 : (1) 86년 TA
(2) 90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망막 op 11차례 현재 좌측 실명
(3) 20년전부터 D.M.으로 식이요법으로 관리
(4) 01년 HTN으로 po-med 복용중
(5) 02년 5월 Cb-inf으로 본원 Adm Tx
5. 가족력 : W.N.L.
6. 이화학적 검사소견 :
1) Lab finding : W.N.L.
2) Vital sign : BP 150/90, pulse 80/분, resp : 20회/분
7. 四診 : 입원 당시 口乾, 口渴이 심함.
舌質紅, 脈緊數. 심박수 80회/1분.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며 후끈거리는 통증의 양상을 나타냄.
小便이 약간 붉음.
8. 현병력 : 상기 환자는 만 72세의 마른체형의 여환으로 상기 P/H 있었으며 이후 별무대병하던중 02. 7. 15. 우측 안구동통과 심한 우측 편두통 있어 17일 본원 E.R. 에서 Tx 받았으나 별무호전한 상태에서 18일에 OPD통해 Adm 함.
9. 환자의 진행상황
1) 18일(입원1일) :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발작적인 통증이 나타남. 손으로 건드리는 가벼운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임. 발작적인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움.
좌측안구까지 방상통 있었으며 견비통 좌반신 소력의 증상을 나타냄.
舌紅, 脈緊數, 口渴
- 2) 19일(입원2일) : 두통 더욱 심해지고 발작의 빈

Table 1. Patient's Progress

	두통양상	수포양상	수면상태	과민반응	동통발작	脈, 舌
18일	++	-	불면	+	수시발작	舌紅, 脈緊數
19일	+++	-	불면	+	수시발작	
20일	+++	발생시작		-		
22일	++	우측안면 우측두부	3-4시간	-	3-4회/1일	舌紅, 脈數
23일	+		5-6시간	-	1-2회/1일	
24일	+	가피형성	숙면	-	-	
25일	+	가피형성	숙면	-	-	
26일	-	가피감소	숙면	-	-	
27일	-	가피감소	숙면	-	舌淡, 脈弱	

통증의 강도평가

+++ : 참기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경우

++ : 통증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

+ : 환자가 약간 느낄수 있을 정도의 통증

- :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

Table 2. Herb-Med

18-19일	清上蠲痛湯
20-21일	龍膽瀉肝湯 加 玄胡索 大青葉 乳香 沒藥
22일	托裏消毒飲
23-28일	龍膽瀉肝湯 加 玄胡索 大青葉 乳香 沒藥 元肉 甘菊
29일	人參養胃湯

도도 줄지않음. 가벼운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도 심해짐. 좌측 안구의 통증도 악화됨. 야간에 수면이 거의 불가능함.

舌紅, 脈緊數, 口渴

3) 20일(입원3일) : 환자의 두통 양상에 크게 변화 없으며 좌측 두부와 입주위에 수포 발생하기 시작함.

4) 22일(입원4일) : 수포가 많이 퍼져서 좌측 두부 전체와 입주위 좌측 안구주위까지 수포 발생함. 두통 완화되기 시작함. 발작적인 두통의 횟수도 감소. 자극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없어짐.

舌紅, 脈數

5) 23일(입원5일) : 수포는 더이상 번지지 않음.

두통 완화. 발작적 통증의 빈도가 줄기 시작하였으며 통증에 과민함도 없어짐.

舌紅, 脈數

6) 24일(입원6일) : 수포는 가피를 형성하기 시작함. 극렬한 두통발작은 사라짐.

완만한 두통이 우측 두부에 계속적으로 남음.

7) 25일(입원7일) : 수포는 가피를 형성함.

완만한 두통만 있음.

8) 26일(입원8일) : 수포는 모두 가피를 이루었으며 조금씩 줄기 시작함.

두통 없음.

두부에 무거운 느낌만 있음.

환자 권태감, 피로감을 느낌.

9) 27일(입원9일) : 가피가 나타나는 부위가 줄어들기 시작함.

두부의 통증은 없으며 권태감과 피로감이 나타남.

10) 28일(입원10일) : 피부의 발진은 줄고 있으며 두부의 통증 없음.

환자는 권태감과 피로감을 계속 호소함.

舌淡, 脈弱

11) 29일(입원11일) : 피부의 발진과 두통양상은 28일과 동일함. 전반적인 기력의 저하와 식욕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함.

舌淡, 脈弱

12) 8월 1일(입원12일) : 퇴원함.

III. 考 察

대상포진은 vzv의 재활성화에 의하여 피부절을 따라 급성으로 발생하는 감염이며, 해당 감각 신경절에 지배되는 피부절에 국한되어 수포성 변변과 동통이

편측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¹¹.

40-6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흉부(50%), 두부(20%)의 순으로 호발하며 특히 안 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난치성으로 알려져 있고 대상포진에 동반되는 통증은 약 2주에서 4주까지 지속된다¹⁰. 대상포진에서 급성동통과 포진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병리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재활성화된 vzv는 전기기 동안에 증식하고 이동해서 감각신경절에 심한 염증과 세포괴사를 일으켜 원위방향으로 말초신경과 피부로 확산되며 근위방향으로는 척수의 후각을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말초신경과 신경절내의 신경원 손상은 구심성으로 전달되어 전기기의 동통으로 나타나며 척수의 후각에서 2차 신경원에 오래 지속되는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피부 자체에 나타나는 염증으로 인해서도 말초 감각 수용체가 자극 받게 되어 동통은 더욱 심해지고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초기 동통의 정도와 포진후 신경통의 발생 연관성에 있어서는 초기 동통이 심할수록 포진후 신경통 또한 자주 발생하여 초기동통의 심한 정도가 후유증의 발생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대상포진의 통증의 성격은 찌른다, 쏜다, 또는 쑤신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나 저린다, 쓰물쓰물하다, 멍멍하다등 환자 자신도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통증을 가지며 고령층일수록 통증이 심하다¹³.

또한 대상포진 후유증기의 통증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한 한 연구에 따르면 포진후 신경통은 60%가 피부발진 발생 후 1개월간 지속되었으며, 환자의 24%가 약간의 동통이 3개월까지 지속되었으며, 환자의 13%는 6개월까지도 동통을 호소하였다¹⁴.

그러므로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는 동통의 억제, 바이러스 확산 방지, 병변의 가피화 및 치유 촉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장애의 완화, 바이러스 파종 및 합병증의 예방, 포진후 신경통의 예방 및 최소화¹¹라 할 수 있는데 이중 대상포진의 초기 치료에 있어서 동통의 억제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서양의학에서 초기의 통증제어를 위해서는 항바이

러스제의 사용과 정상신경절 차단술, 스테로이드제, 진통제, 삼환계 항우울제, 인터페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2,8,10}.

한의학에서도 帶狀疱疹을 다루고 있는데 火帶瘡, 纏腰丹, 纏腰火丹, 蛇串瘡, 蛇丹, 蜘蛛瘡, 蛇瘡, 飛蛇瘡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¹⁵.

대상포진의 병인으로는 외인으로 風, 熱, 濕 등이 있고^{7,15} 연관되는 장부로는 肝, 心, 脾, 肺, 腎, 三焦 등이 있으며 巢¹⁵는 風濕이 血氣와 相搏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王¹⁶등은 心腎不交 하고 肝火內熾하여 流入膀胱 하므로 纏於帶脈하여 발생한다고 하였고, 吳⁷ 등은 乾性은 肝心二經의 風火가 응결되어 발생되고, 濕性은 脾肺二經의 濕熱이 축적되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증상에 대한 설명 또한 여러문헌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巢¹⁵는 纏腰生하고 狀如飢帶라 하였고, 王¹⁶은 纏腰生瘡하고 累累如珠라 하였고, 吳⁷는 乾燥形, 濕潤形 으로 구분하였다. 두가지 모두 겹쳐서 珠子狀을 이루고 있으나, 乾燥形은 雲狀인 潮紅面에 과립 크기의 발진이 나타나고 瘙痒과 發熱을 동반하며 이것은 肝, 心2경의 風邪에 의해서 火化된 것이며, 또 濕潤되어 黃白色의 대소 水疱와 糜爛을 나타내는 것은 乾燥形보다 통증이 심하며, 이것은 脾, 肺의 2경이 濕熱에 침해당해 발생된 것이라 하였다¹⁷. 최근의 자료에서도 乾燥形과 濕潤形의 두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에 있어서 王¹⁶등은 內疎黃連湯 등으로 清熱을 위주로 하였고 吳⁷는 肝心二經의 火에는 涼心瀉肝하는 龍膽瀉肝湯을 脾肺二經의 濕熱에는 清肺瀉脾하는 除濕胃茶湯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요부에 발생하는 것은 肝火妄動의 소치이므로 柴胡清肝湯으로 내치한다고 하였으며, 陳¹⁸은 三焦風熱로 인해 발생하는 火丹은 化斑解毒湯으로 치료하고, 脾肺二經의 濕熱로 인한 것은 除濕胃茶湯으로 치료한다.

현대의 임상보고로는 崔¹⁹의 四象方 투여에 의한 치료와 李²⁰의 升麻葛根湯과 龍膽瀉肝湯을 이용한 치료, 裴²¹의 涼膈散火湯에 의한 치료등의 임상보고들을

통해 한약을 통한 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金²²등의 연구에 의하면 龍膽瀉肝湯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과 염증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적 보고도 있다.

본례의 경우 환자가 입원 당시 口乾, 口渴이 심하였고 舌質紅, 脈緊數, 심박수 80회로 약간 빠른 편이었으며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후끈거리는 통증의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소변이 약간 붉은 등의 열상을 나타내며 병변의 부위가 우측 편두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肝膽의 風火에 의한 삼차신경의 일부를 침범한 대상포진이라 진단하고 龍膽瀉肝湯을 사용하여 치료한 경우이다.

龍膽瀉肝湯⁵은 金元代 李의 東垣十書 蘭室秘藏에 “治陰部時復熱癢及臊臭”라하여 처음 수록되었으며 본 처방의 구성내용은 淸肝膽火 淸熱燥濕하는 작용을 가진 龍膽草, 疏肝解鬱하는 작용을 가진 柴胡, 利水瀉火하는 澤瀉, 降火利水하는 작용을 가진 木通, 行水泄熱하며 淸肝風熱하는 車前子, 利水滲濕 健脾和中하는 赤茯苓, 涼血瀉火하는 生地黃, 和血의 의미로 쓰여진 當歸, 瀉心肺之火하는 梔子, 淸中焦實火하는 黃芩 및 甘草로서 淸肝瀉火 淸利濕熱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

입원당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舌紅, 脈緊數하여 淸上蠲痛湯(黃芩, 羌活, 獨活, 防風, 蒼朮, 川芎, 白芷, 當歸, 麥門冬, 蔓荊子, 甘菊, 薄荷, 甘草, 細辛, 生薑)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피부의 과민성등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른 두통의 양상을 보여 이후 肝膽의 風火에 의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하여 龍膽瀉肝湯(龍膽草, 柴胡, 澤瀉, 木通, 車前子, 赤茯苓, 生地黃, 當歸, 梔子, 黃芩, 甘草)을 투여하기 시작(8월20일)하여 2일째(8월21일) 투여중에 통증에 대한 빠른 호전을 보였으며 6일 정도 투여 후(8월25일) 상당한 통증의 호전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원한지 3일만에(8월20일) 수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4일 후(8월24일) 가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6일만(8월26일)에 가피가 상당부분 제거되었다. 통증으로 인해 불편상태인 것은 통증이 줄어들면서 龍膽瀉肝湯 투여후 3일째 (8월22일)부터 하루

3-4시간 정도 야간에 수면을 이룰수 있었고 脈이 數하였다. 龍膽瀉肝湯 투여 5일후(8월24일)부터는 숙면을 취할수 있게 되었다. 龍膽瀉肝湯을 투여하던중 8월20일부터 수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8월22일에 수포의 透發을 돕기 위해 托裏消毒飲(金銀花, 陳皮, 黃芪, 天花粉, 防風, 當歸, 川芎, 白芷, 桔梗, 厚朴, 穿山甲, 皂角刺)을 (8월22일)에 투여하였다. 이후 다시 8월23일부터 龍膽瀉肝湯을 계속 투여하였다. 처음 20일과 21일은 龍膽瀉肝湯에 玄胡索 大靑葉 乳香 沒藥을 가하여 사용하였으나 환자가 입이 마름을 호소하고 소화장애를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하여 8월23일부터는 기존처방에 元肉과 甘菊을 가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龍膽瀉肝湯을 투여한지 5일 정도 지난 8월26일부터 환자는 권태감과 피로감등 전신적인 무력감과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권태감 무력감등의 증상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적으로 조금씩 소화불량, 권태, 무력감의 증상이 더해지고 舌淡, 脈弱해져서 29일부터 人蔘養胃湯(蒼朮, 陳皮, 厚朴, 半夏, 赤茯苓, 藿香, 人蔘, 草果, 甘草, 烏梅, 生薑, 大棗)으로 바꾸어 투여하던 중 환자 퇴원하였다.

IV. 結 論

본 환자는 肝膽의 風火에 의한 삼차신경의 안분지를 침범한 대상포진의 경우로 대상포진의 초기에 동반되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였으나 수포가 나타나기 이전의 두통만을 보고 초기에는 편두통의 통증으로 오진하였었던 경우로 후에 수포가 확인되면서 龍膽瀉肝湯의 투여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2-4주간의 통증을 나타내는 대상포진에 비해 이 환자의 경우는 7일정도 경과후 통증의 약화를 보였으며 이는 포진후 동통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된다.

환자의 치료과정중 龍膽瀉肝湯의 투여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龍膽瀉肝湯 투여 5일후 부터 無力感, 倦怠感, 疲勞感, 食慾不振, 消化不良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방의 가감이 필

요할것이라 사료된다.

參考文獻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개정 3판. 서울: 여문각; 1994, p.284-5, 2427-50.
2. 최훈, 김동찬. 대상포진 환자의 통증치료에 관하여. 대한통증학회지. 1999;3(1):34-8.
3. 李東垣 외.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219-20.
4. 李尙仁. 本草學. 서울: 醫學社; p.57,100,107,197, 258,273,278,282,470,471,479,488,492.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4, p.201-7,313,359-69.
6. 金義泰. 龍膽瀉肝湯 및 鈞鈎藤 夏枯草 車前子 加味方이 高血壓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0.
7. 吳謙.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自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67-8.
8. 권순백 김도원 정상림 이석중. 대상포진 환자에서의 급성 동통 및 포진후 신경통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000;38(3):314-21.
9. 전국의과대학교수 역.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서울: 도서출판 한우리; 1999, p.1406-7.
10. 이일환, 김병수, 이승철, 조대현. 대상포진환자의 급성기 통증과 포진후 신경통 발생에 대한 정상신경절 차단술의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7(5):571-9.
11. 피부과학 원색도감 편찬위원회 편. 피부과학 원색도감. 서울: 정담출판사; 1993, p.814-7.
12. Meister W, Neiss S, Gross G, et al. Risk factors for postherpetic neuralgia in ambulatory patient. Infection 1998;26:359-63.
13. Loeser JD.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pain 1986;25:149-64.
14. 申天浩. 問答式 오관외과학. 서울: 成輔社; 1992, p.388.
15. 巢元方.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84.
16. 王肯堂. 六科准繩. 臺北: 新文豐出版股形有限公社; 1979, p.17,272.
17. 蔡炳允 편저. 皮膚科의 漢方治療(辨證과 臨床). 서울: 一中社; 1991, p.67.
1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52-3.
19. 최규동, 채병윤. 대상포진 환자의 치험3례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997;10(1):351-4.
20. 이연숙 외. 대상포진환자 1례에 관한 증례보고. 혜화의학. 1992;1(1):167-70.
21. 배성한, 남창규. 안구 대상포진환자 1례에 관한 증례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0;20(4):106-14.
22. 金南權, 金鐘翰, 林圭序, 黃忠淵. 龍膽瀉肝湯의 抗바 이러스 活性 및 免疫反應에 대한 實驗的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1998;11(1):1-22.